



'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토·크

유부남! 남자도 아니고 교류할 대상도 아니다

부하 직원들, 아니, 정확하게는 부하 여성들하고만 잘 지내시는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성들과 술마시며 '격의 없이' 본인의 아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교도 없고 의무증 걸린 사람처럼 시시콜콜 감시하고 셋도 거의 안해준답니다. 인간적인 척, 소탈한 척, 진솔한 척, 권위적이지 않은 척, 온갖 '척'을 다하여 한다는 소리가 겪어집니다.

그 부장은 정말로 아래와의 갈등이 고민돼서 이런 얘

기를 했을까요? 이제 겨우 20대인 여성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적절한 대화 상대와 겸맞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친한 친구나 정신과 의사에게나 하는 아주 내밀한 이야기이지요. 부부를 리니에나 가서 해야 할 이야기를 저런 자리에서 합니다. 자리도 황당하지만 상대도 참으로 '부적절'하지요.

그 자리의 여성 중 한 명이 그러더군요, "그렇게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장님이 불쌍해요. 부장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 여자 만나도 그 부인은 할 말 없을 거 같아요." 이분 제대로 낚았습니다. 뭐 할말이 있겠습니까? 저런 얄은 수가 먹히는 이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지요.

내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서 이런 여성들한테 저런 소리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빨래해준 깨끗한 옷입고 나가서 저렇게 훈소리하고 있습니다. 푼수라는 표현도 아깝지요. 유부남을 불 때, 남자 아닌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행동을 보면, 행간이 읽히고 진실이 보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미훈 여성 여러분! 남의 남편 결혼이

불행하는 맘든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런 주제넘은 짓 하시는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동정해주시지 않아도 그 부인들이 잘 입하고 잘 먹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제해주려는 생각일랑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도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싶다면 지구상에 불쌍한 사람을 전지에 넣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내 동네에 결식아동, 외국인 노동자, 독거노인 많습니다. 그

남 자원봉사 하세요.



유부남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관심도, 관계도 애초에 맺어서는 안됩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은 본인 인생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발, 회사는 회사고 집은 집인 것처럼, 유부남은 남자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교류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내 상사고 내 직장 동료일뿐입니다.

처녀들에게 인간적인 척 관심을 보이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유부남, 개인적인 이야기 털어놓는 유부남, 개인적인 선물 주는 유부남, 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입니다. 유부남들의 접근에, 인간적인 호감을 이성적인 호감으로 생각하는 도끼병에 자신이 걸렸을까봐 고민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끼병이 아니고 진짜 당신을 꼬셨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요즘 전자가 자리밥입니다. 직장을 낚시터로 생각하는 유부남들도 많습니다. '애인' 만들고 싶어서 혈안이 된 유부남들, 길거리에 바글바글합니다. 유부남에게 관심이 있다면 예이면 3대가 피곤합니다. 반경 2미터내로 접근금지입니다. 그저 멀리 멀리 피하면서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오준 경보는 발령하면서 왜 유부남 경보는 발령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미훈 여성 여러분! 남의 남편 결혼이

검색결정 키워드

검색

누구 말이 맞나? 진실은 법정에서...

누구 말이 맞을까. 탤런트 이찬-이민영 커플의 진실 공방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주였다.

탤런트 이찬(본명 과현식·30)씨와 이민영(30)씨의 파경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최근 기간에 파혼한 이를 연예인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던 네이버들은 이제 양측의 상반된 파경 원인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민영씨가 이찬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하면서 검찰 조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사람 후세인(69) 전 이라크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교수형을 당한 소식도 화제가 됐다.

20년째 드재자로 군림해 온 후세인은 2003년 12월 고황 티크리트의 토굴에서 생포된 지 3년 17일만에 처형됐는데, 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이 사형을 확정(26일)한 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집행됐다.

특히 죽음을 앞둔 후세인의 비장한 표정과 그를 모욕하며 춤까지 추는 시아파 사형집행인들의 상반된 태도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공개 처형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취임을 앞둔 대학생들의 최고 인기 직종 중 하나인 공무원에 대한 보수 기준도 인기 검색어에 포함됐다.

공무원 봉급표가 인터넷에 뜨면서 공무원의 보수를 보려는 네이버들이 많았다.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의 모바일 화보집을 공개한 이진에 대한 검색 횟수도 많았고, '2006 SBS 연기대상'에서 뉴스타상을 받은 고아라(17)가 팝수 크리스티나 이길례리의 노래에 맞춰 선보인 춤 동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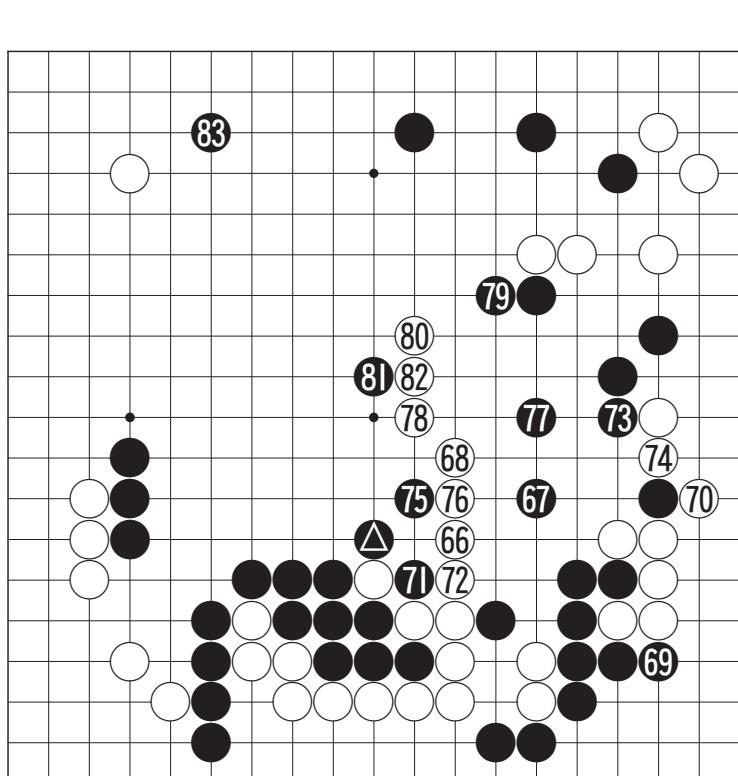
영화배우 염정아(34) 씨가 지난해 12월 30일 정경외과 전문의 허일(35)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탤런트 고아라가 지난해 말 열린 방송사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선보인 현란한 춤술씨가 화제가 되고 있다.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트 데일리 제공>			
1위	이민영 파경	6위	공무원 봉급표	
2위	후세인 사형	7위	고아라 춤	
3위	황금 돼지해	8위	울산얼짱 이슬기	
4위	대안 지진	9위	이진 화보	
5위	문근영 댄스	10위	염정아 결혼	



제9회
전남도지사杯 바둑대회
여성부 결승

쉽지 않은 공격 5보(66~83)

白 김지은 5단
<해남군>
黑 김태현 5단
<목포시>

국면이다. 이제 흑은 백 대마의 공격에서 점을 옮겨야만 한다.
흑 Ⓛ가 일단은 기분좋은 두들김이다. 그러나 백 66으로 뛰어나가니 쉽게 공격이 안되는 모습이다. 김태현 5단도 직접 공격은 힘들다고 보

우연에 서 백이 크게 활개를 치고 살아서는 백이 편해진

고 67로 일단 가쁜 다음 69로 막아

귀를 지켜둔다. 이곳은 선수가 되는 곳, 그리고 나서 73부터 79까지 두텁게 모양을 정비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

흑 73 때 백 74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젓히는 것이 나았다.

흑 2로 받는다면 3으로 들여다 본 다음 7까지 정비해서 백이 편한 바둑이 된다.

흑이 모양을 정비하는 동안 김지은 5단도 82까지 대대로 탈출해서 불만이 없는 모습이다.

흑 83으로 걸쳐 국면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813>

오하이오 니흔고 <813>

What did you have in mind?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A:I need some new sandals.
B:Wonderful. We have quite a selection. What color did you have in mind?

A:I haven't thought about it. Comfort is the main factor for me.

B:Well, these are very comfortable. And they come in a number of colors.

A:샌들 있습니까?

B:그럼요. 저희는 구색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색상이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A:아직 생각해 둔 것은 없습니다. 편안함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B:음, 이것들이 매우 편안합니다. 그리고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election : 선택, 정선, 선정
have in mind : 염두에 두다
comfort : 편안함

出かけるところがないんですよ

갈 곳이 없어요

A:朴さん、お正月は、お國(くに)へ歸ってゆっくりするんですか?

B:僕(ぼく)は、故郷と言つても「ソウル」だから、出かけるところがないんですよ。

A:じゃ、自分の家で?

B:そうですね。正月(しょうがつ)は「くっちゃんねくっちゃんね」して、「寢正月(ねしょうがつ)」といったところですね。

A: 박 아무개씨, 설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쉴 겁니까?

B: 저는 고향이라고 해도 '서울'이니까 갈 곳이 없어요.

A: 그럼, 자기 집에서?

B: 그래요. 설에는 '먹고자고 먹고자고'하는 '잠만 자는 설'이라 고 할 수 있죠.

お正月(しょうがつ) : 설

お國(くに) : 고향 나라

出(で)かける : 외출하다, 나가다

니하오 쭉구워 <4>

能不能试一试?

입어봐도 될까요?

A: 懶得, 亂來, 多少裝作 zhejian, bâchênsian, shùoshaoqian

魄力全無, 亂世而爲, 費心費力

B: 犯規, 八十步, 角力, 角力者, 角力手, 角力場所

犯规, 八十步, 角力, 角力者, 角力手, 角力場所

C: 能否試一試?

néngbùshì yízhì

能不試一試?

D: 請勿試, 欢迎試驗, 欢迎試驗, 欢迎試驗, 欢迎試驗

請勿試, 欢迎試驗, 欢迎試驗, 欢迎試驗, 欢迎試驗

E: 你有沒有能力試一試?

你有沒有能力試一試?

F: 你有沒有能力試一試?

你有沒有能力試一試?

G: 你有沒有能力試一試?

你有沒有能力試一試?

何彬 [chénbîn] 서초, 와야서초

当然 [dângrán] 능연장, 능존

한자 이야기 <431>

座右銘(좌우명)

자리 좌, 오른 쪽 우, 새길 명

좌우명(座右銘)은 앉은 자리 오른 쪽에 두고 항상 봄의 반성(反省)으로 삼는 격언(格言)이다. 즉 글로 써서 항상 봄 근처가 깨운 곳에 두고 자신을 신진하는 금언(金言)을 말한다. 여기서의 좌우(座右)를 '좌작(左座)'로 표현하여 좌작명(座右銘)이라 고도 한다. 좌작(左座)란 '옆'이라는 뜻으로 봄 까운 곳을 의미하는 것이다.

후한(後漢)의 최원(崔瑗)은 젊은 시절 자신의 형이 고을에 살해되는 것을 당하였다. 최원은 이것을 가슴아파하며 형의 원수를 갚고자 남몰래 범인을 찾아내서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망명(亡命)을 하여야만 했다. 뒤에 사면(赦免)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젊은 시절부터 학문을 좋아하였던 최원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더욱 형마자 살해당하고, 결국은 자신도 죄를 엊은 젊은 시절의 체험(體驗)을 되살려서 자신을 경계(警戒)하는 격언을 모아 적어서 자리 오른쪽에 두고 항상 자신을 단속하였다고 한다.(文選)

정해년(丁亥年)의 좌우명을 생각할 시기인듯하다. 성공한 사업가의 좌우명으로 소개된 '아내와 늘 상의하라'라는 구절은 떠올려 본다.

〈한예원(韓睿嬪)〉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230-6505